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선도지구 수질 환경보전회의 개최

오명관 기자 | 승인 2026.05.27 19:15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용)는 27일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한 금마저수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수질환경보전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자체 등 참석위원들과 수질환경보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지자체, 경찰, 환경단체, 농업인등과 맡은바 업무 분담을 공유하는 등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한 상호협력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조사와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상류 오염원 합동 점검 및 낚시행위 단속하며, 익산시와 경찰서에서는 낚시행위자에 대한 계도지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저수지 유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염원, 비점오염원 저감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민은 금마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수질보전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태용지사는 "이번회의를 계기로 공사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저수지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정기적회의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오명관 기자